

올림픽 도로 3,978억 투입

연내 관련 고속도·진입로 개통
서울~양양 이동시간 40분 단축

올림픽 도로가 뚫린다. 올해 올림픽 관련 도로사업에 총 3,978억원이 투입된다. 9일 국토교통부의 올해 간선도로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에 따라 동해-양양 간 고속도로는 올해 6월,

안양~성남간 고속도로는 올해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개통 이후 서울-양양 간 이동시간은 기존 2시간10분에서 1시간30분, 인천공항~원주는 2시간15분에서 1시간35분으로 40분씩 단

축된다. 진입도로 사업에도 819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도로가 올해 개통될 수 있도록 완공사업 위주로 여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동계올림픽 특수에 주요 교통망 잇따라 개통

강원 부동산시장 열기 '최고조'

강원도 부동산 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교통망이 올해 속속 개통되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주택착공 실적은 2만7862가구다. 전년도보다 31.2% 증가했고,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91.2%가 늘어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주택착공 실적이 65만7956가구로 전년도보다 8.2%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도내 주택착공 실적이 엄청난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도내 분양실적도 급상승했다. 지난해 도내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은 2만1233가구로 전년도 1만2340가구보다 72.1%가 증가했다. 최근 5년 도내 평균 분양승인 실적은 8526가구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국 분양승인 규모는 46만9058가구로 전년 대비 10.7% 감소하는 등 전반

지난해 주택착공 2.7만가구
전년보다 31.2% 수직상승
분양도 2.1만가구로 72% 증가
아파트값 1년새 2.94% 경증

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유독 도내 부동산 시장만 호황기를 맞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강원도 아파트 매매가는 2.94%가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0.85%를 압도했다. 상가 등 도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살아났다. 지난해 11월까지 도내 상업용 부동산 착공면적은 139만5000㎡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다.

도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은 이유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다가오면서 지역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여기에 동홍천~

양양 고속도로와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연내 개통되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춘천~속초 고속철과 여주~원주 철도 등 추가 교통망 구축도 임박했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영향 등으로 상가 신축을 비롯해 도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살아났다”면서 “시멘트 등 유관 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림픽 특수가 끝날 경우 주택가격 하락 등 조정기를 거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도내 미분양주택 수는 3605가구로 전월에 비해 1126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월 평균 미분양 주택 규모도 2478가구로 전월보다 62가구 늘었다.

권해석기자 haeseok@

평창올림픽 지원 고속도로 2곳 연내 개통

6월 동홍천~양양
하반기 안양~성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서울 관광객들이 경기장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고속도로 두 곳이 연내 개통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사업인 동홍천~양양(71.7km), 안양~성남(21.9km) 고속도로가 각각 올해 6월과 하반기에 개통한다.

두 고속도로가 열리면 서울과 인천공항에서 경기장 등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관광객 편의를 높이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에서 양양까지는 2시간10분에서 1시간30분으로, 인천공항에서 원주까지는 2시간15분에서 1시간35분으로 각각 40분씩 이동시간이 단축된다.

올해는 3월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28.9km)와 12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48.8km)가 잇달아 개통해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달 개통한 부산신항 제2배후(15.3km)에 이어 구리~포천(6월, 50.6km), 상주~영천(6월, 93.9km) 민자고속도로가 열려 물류 흐름과 지역 간 교통소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 이동성을 높이고 나후지역을 개발하려는 목적에서 연내 신설되거나 확장 개통하는 국도는 전국 48곳, 총 461km다.

특히 수도권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등 6곳(56.3km), 강원권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도로(국도 5개 사업) 등이

완공돼 다른 지역보다 많은 12곳(155.1km)이 개통한다.

충청권은 영동~추풍령 등 8곳(70.3km), 호남권은 신지도와 고금도를 잇는 신지~고금 해상교량 등 12곳(110.1km), 영남권은 경주시를 지나는 내남~외동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10곳(68.7km)이 새로 열린다.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하는 국지도 12곳(92km), 혼잡도로 개선사업 2곳(11km), 광역도로 4곳(23km)을 포함하면 올해 구축되는 간선도로망은 73개 구간, 총 918km다.